

# 관람객 늘었지만 지역경제 연계 전략 아쉬워

## 광주비엔날레 개막 한달

유료 관람객 9만여명 찾아  
2014년 보다 2배 늘어

2전시실 영상 작품 인기  
시민참여 '나도! 아티스트'  
퍼포먼스 관람객 유독 한몫

문화전당~양림동~무등산  
셔틀버스 이용객 미미



광주비엔날레 관람객들이 1전시실에 설치된 토미 스토크엘의 'The Gwangju Rocks'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개막 한달을 맞은 '2016 광주비엔날레'가 지역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관람객 유치보다는 의지인들이 비엔날레를 감상한 후 지역 관광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문화관광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3일 '2016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한 관람객은 11만8000명으로 유료관람객만 따져 봤을 때 지난 2014년에 비해 약 2배 수준이다.

비엔날레는 가을을 맞아 열리는 총장축제, 중외공원 아트피크닉, 광주시립미술관 특별전 등과 연계해 나들이객 발길을 붙잡고 있다.

특히 주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에 맞춰 5개 전시실 온도와 밀도, 분위기 등 기후 환경을 제각각 다르게 조성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작품과 작품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뒤 산책하듯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해 지난 행사와 차별화된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영상 위주 작품을 설치한 2전시실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약 15개 작품이 설치된 2전시실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누울 수 있는 소파를 배치해 편안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 : Healing Heart(힐링아트)' 퍼포먼스와 공연도 관람객 유도에 한몫하고 있다. 8일에는 N뮤지크의 '바로크의 젊은 역사

들' 공연, M.F.O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문유미씨는 30일, 11월 4-5일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시 밖 볼거리를 풍성하게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본 전시관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을 광주-전남 관광으로 이끄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시장을 나온 사람들에게 지역 축제, 문화유적 등을 소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 두암동 장려사~문화전당~양림동~무등현대미술관 등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3대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셔틀버스와 외부 전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방문한 비엔날레 전시관에서도 관

람을 마친 사람들이 입구에 정차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재단에 따르면 셔틀버스는 3대를 모두 포함해 1일 약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등산권 미술관까지 방문한 관람객은 1일 약 30명 가량에 그쳤다.

전시작품을 소개하는 데도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전시실에는 설치 작품 뿐 아니라 히토 슈타이얼 '태양의 공장', 마리야나 실바 '디지털 표본' 영상이 배치돼 있지만 관람객들을 모르고 지나쳤다. 별도 작품 안내판이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3전시실 안톤 비도글 '공산주의 혁명은 태양이 일으켰다'도 마찬가지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테마여행에 빠진 사람들

## 희망의 망고나무 대표 이광희의 '나눔 철학'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 에냥 10월호



가을은 여행의 계절이다. 떠나고 싶고, 떠나야 하는 계절이다. 쳇바퀴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 떠나는 여행은 산소와 같다. 요즘은 널리 알려진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획일적인 탐방 대신 스토리와 문화, 예술 명소를 찾아다니는 테마여행이 추세를 이룬다.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매거진 '에냥' 10월호는 특집 '나만의 여행 로망, 테마 여행이 든다'를 주제로 테마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행 초대석'이 만난 주인공은 희망의 망고나무 대표인 이광희의 패션 디자이너다. 낭만적인 풍경을 그리며 떠난 아프리카에서 황량하고 척박한 현실을 마주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게 됐다. 7년동안 4만여 그루의 망고나무를 심어 남수단 톤즈의 기아와 빈곤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 그에게서 패션 인생과 '나눔의 철학'에 대해 들어본다.

'사람이 브랜드'는 중국의 3대 작곡가로 꼽히는 정윤성과 그의 고향 빛고를 광주 이야기다. 정윤성의 생애가 남아 있는 동구 불로동, 유년과 청소년기를 보낸 화순 능주와 광주 남구

양림동까지 음악으로 대륙을 사로잡았던 천재음악가를 브랜드와 할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기획으로 준비한 '남가파르브 가는 길'은 파키스탄 북부 히말라야산맥 서쪽 끝에 위치한 '산중의 왕' 남가파르브 원정대 이야기다.

세르파들로부터 '킬러 마운틴'이라고 불리며 험준해 등반이 쉽지 않다는 이곳에 박상수 대장을 비롯한 조선이공대 출신 산악인들이 트레킹 팀을 꾸려 떠났다. 본사 정후식 편집장이 이들과 함께 한 여정을 '파키스탄 히말라야 남가파르브 원정기'에 담았다.

이외에도 전라도의 맛과 맛과 흥을 찾아 떠나는 '남도 美味樂'은 남만이 흐르는 해양관광도시 여수를 소개하고, 한글날 기획으로 캘리그래피로 보는 아름다운 한글 이야기를 전해준다.

소박하면서도 견고한 나주소반을 만들고 있는 김춘식 장인, 팀을 다독이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KIA 타이거즈 주장 이범호 선수, 드라마 '질투의 화신'으로 돌아온 '공룡리' 공효진과의 인터뷰도 기대된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 아트그룹 '소나무' 20주년 기념전 29일까지 보성 백민미술관



조소작 'Expression1'

지난 1996년 창립한 이래 매년 신선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아트그룹 '소나무' (회장 조소)가 보성 백민미술관에서 20주년 기념전 '명상-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를 29일까지 연다.

'소나무'는 지역 작가와 예술을 사랑하는 의사, 세무사, 공무원, 교수 등 명예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단체다. 단체명에는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치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매년 정기전 이외에 2~3년마다 해외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소 회장을 비롯해 김영일, 이혜리, 조시아, 류재웅, 장승훈, 안진성, 정경래, 최대주, 위진수, 조규철, 홍원철 회원이 참여한다. 중견작가 농익은 솜씨부터 신진 작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한국화, 서양화, 조소, 입체 등 약 25점을 출품했다. 특히 처음 발기인 대회를 열었던 보성에서 기념전을 열며 의미를 더한다.

백민 조규일 회백 차남인 조소 회장은 러시아 레닌 미술아카데미에서 수학하며 동서양 미(美)가 어우러진 'Expression1'

을 출품했다. 류재웅 작가는 화폭 가득 노란색으로 채운 '산수유'를 통해 남도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또 정경래 작가가 그린 '영혼으로의 여행'은 바쁘게 달리는 자동차 너머로 발이 반짝이는 하늘을 배치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밖에 30대 김영일 작가의 'Forgetting-City Life 27', 20대 이혜리 작가의 '달토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1-853-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용·박동민·박종수·신동연·박성현·전희진·정윤태

##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11. 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개막일시: 2016. 10. 11 pm 5:00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거리 서문입구)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 비전타워 7~8층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입점 내과 성업중이며, 피부과 치과등 11월 오픈확정!
- 병원용 침상이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 완비
- 주변 배후세대 5000여가구 밀집

7층 전용면적 453평 / 8층 전용면적 453평 (전체 면적도 가능 / 1칸씩 분양 및 임대도 가능)

권장업종

- 넓은 객실을 요하는 한방병원
- 아동 전문병원
- 업무용 사무실

분양가격 및 계약기간, 임차가격은 협의가능하며 매수인과 임차인 의견 적극수렴 합니다.

비전타워 분양 대행사 비전공인중개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685, 비전타워106호)  
대표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